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단 결단식

“기생충 관리 전환점 마련”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단 결단식(結團式)이 지난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건강관리협회 홍보관에서 있었다.

이날 결단식에는 건협 崔振學 회장, 林漢鍾 부회장, 全武根 사무총장, 보건사회부 宋仁政 보건교육과장을 비롯해 기생충 관련학자, 건협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실태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실태조사단장인 崔振學 회장은 식사를 통해, 『'6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 기생충검사는 국민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제5차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나라 기생충 관리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宋仁政 보건교육과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安弼濬 보사부 장관은, 『'71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되어 온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는 국민건강의 지표로서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5차 실태조사는 새로운 기생충관리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조사단원 뿐만 아니라 일선 보건관리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실태조사는 전국 194개 지역의 4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검사결과, 통계처리까지 완료되는 최종 시기는 '93년 9월 30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조사 실무자 교육도

한편 건협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태조사계획, 조사방법, 각종검사법 이론 및 실습, 통계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건협, 직원 가정에 협조 편지 보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조선일보사가 주관하는 “쓰레기 줄이기 공동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사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각 가정에서도 이 캠페인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全武根 사무총장은, “우리 나라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 ① 각 가정에서는 비닐봉지나 포장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 ② 1회용 식기류 사용을 자제하고,
- ③ 음식은 적당량을 준비하며,
- ④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고,
- ⑤ 이 캠페인에 우리의 이웃을 동참시키자”

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 편지를 직원들의 각 가정에 보냈다.

또한 건협은 사내에서도 폐품수집운동 전개, 재생물품 및 이면지 활용에 적극 앞장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건협은 이외에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씬쌈이 10% 줄이기, 하절기 냉방기 가동 지양, 차량 10부제 운영, 일과시간 경조사 참석 지양, 고급 유흥업소 출입 제한 등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치·낭비 풍조 배격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건협 지부별 공개강좌 계획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부산지부가 8월 공개강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강좌시간은 오후 2시이며, 장소는 해당지부 홍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부 (서울 601-7161~5, 부산 553-6401~4)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지부

-8월 6일 : 간장질환(국립의료원 내과 김학산 박사)

-8월 20일 : 소·대장질환(영동세브란스병원 손승국 박사)

◎ 부산지부

-8월 20일 : 간장질환

국민 건강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자

건협, 직원연수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2년도 직원 연수교육을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경북 백암에서 가졌다.

1, 2차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건협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교육 첫날 개최사를 통해 최진학 회장은,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의 종사자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주 양로원 방문, 건강검진 상담 실시해

건협 제주지부,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서, 보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지난 6월 27일, 지부 사업과 김옥일씨의 조모(91세)와 양부모 결연을 맺은 제주지부는 김봉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할머니를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제주양로원

을 방문해 40여명의 노인들에게 건강검사와 건강상담을 해주고 다과회도 베풀어 점차 메말라가는 세상 인심에 해갈의 비를 내려주었다.

한편 제주지부는 앞으로도, 김옥일씨의 할머니와, 양로원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학회장

“더욱 꽃꽂하게 살아주소요”

故이종희 총무과장 부인에게 직원성금 전달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최진학 회장

건협 최진학 회장은 지난 6월 29일 故이종희 과장의 부인인 홍순덕 여사에게 전국의 직원들이 급여에서 1%씩을 각출한 위로의 성금을 전달했다.

故 이종희 과장의 갑작스런 부음을 접하고 건협 직원들이 받은 충격이 컸던 만큼, 남아있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자는 뜻에서 이번 성금의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홍순덕 여사는 최진학 회장과 전무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건협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건협, 직원하계휴가 시작

본격적 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의 하계휴가가 7월20일부터 9월5일까지중 날짜를 선택해 3일간 있게 된다.

400여명의 전직원이 하계 될 이번 휴가는, 2차로 3일간을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건협 직원들이 휴가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하반기 사업에도 더욱 진일보하여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주도 지부 낙성식

오는 8월20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 지부가 신축건물 낙성식을 오는 8월20일에 갖는다.

한편, 이번 낙성식을 겸해 건협 사무국장 회의와 '9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도 제주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92년도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